

## 한민족 정보기술협력사업 중 정보기술 도서 나눔 사업 (1차 도서보내기 결과 보고)

### 사 례 발 표

#### 목 차

1. 사업의 의미
2. 시작 및 준비과정
3. 도서 수집 및 분류
4. 최종 전달도서와 기증단체
5. 도서전달
6. 향후계획
7. 전달 후 느낌과 감사의 인사

양 룡  
(인하공업전문대학)

남북한간의 정보기술(IT)협력 사업으로 한국 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및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5월 북한에 IT도서 30,621권을 전달하였다. 많은 분들이 본 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셨으며, 특히 학회 회원이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북한에 도서를 전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학회의 조정 역할과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정리하였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2차 남북IT협력위원회에서 “한민족 IT 기술협력사업”으로 하며 사업 내에서 “IT 도서 나눔”과 “IT 포럼”으로 하기로 하였다.

### 1. 사업의 의미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여 남북한이 협력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 학회는 한민족 IT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로의 산업발전과 기술 및 용어 격차 등을 줄이

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 나눔을 시작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IT 포럼을 계획하였다.

본 사업의 추진은 2005년도에 도서보내기를 하고, 그 후 포럼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은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1차 도서 전달을 하였고 도서 나눔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두 학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2차 추진 시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이며, IT 포럼은 신중히 검토 할 사항이라고 본다.

### 2. 시작 및 준비과정

2005년 초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회장의 발의로 남북 IT협력 사업이 정보과학회에서 논의되었다. 이는 조현정 회장이 2002년 조선컴퓨터센터와 도서기증 의향서를 받은 것을 기초로 학회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정보과학회에서 학회 공동 사업으로 제안하여 정보처리학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요경비 약 5,000만원은 벤처

기업협회가 조달하기로 하고, 도서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역할은 두 학회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 25일 1차 남북 IT 협력 회의를 정보과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사업의 고문으로 박찬모 총장을 모시고, 당시 두 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14명이 참석하여 “남북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으로는 “IT 도서 나눔”과 “남북IT포럼”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시 계획은 2005년 7월에 IT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개최 전 도서 3만권을 수집하여 보내려고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의 엄영익 교수님을 책임자로 하여 도서나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작업을 위하여 4월 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 6월 2일, 6월 22일, 7월 18일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초 계획은 2005년 4, 5월에 도서를 수집하여 6월에 북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전달이 2006년 5월로 지연되었다.

지연된 사유는 2002년도 의향서를 바탕으로 도서전달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다. 도서 수집, 분류, 포장완료가 계획보다는 늦은 2005년 7월에 이루어 졌으나 북한에서 도서 인수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결국 2005년 10월 27일 공동 추진한 세 단체의 책임자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측과 접촉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접촉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변정용 교수님이 조선교육후원기금을 통해 교육성을 접촉하였고, 박찬모 총장님의 도움으로 (주)유니코텍 코리아 유완영 회장님을 통해 민화협과 접촉하였고, 2006년 초 두 경로 모두 도서를 받겠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리고 도서전달식은 민화협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2월 28일 남측대표로 유완영 회장과 북측대표로서 민화협 오충혁 참사 간에 새로운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도서가 전달되었다.

### 3. 도서 수집 및 분류

도서관념분과는 엄영익 교수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로 추진하였다.

도서는 약 30,000권으로 정하고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IT 관련 서적으로 하며, 도서는 두 학회의 회원인 교수님들로부터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국내 IT분야 출판사로부터 기증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도서는 IT 관련 최신 기술이 소개된 서적을 위주로 하였다.

도서 수집에 대한 안내문을 두 학회를 통하여 4월에 발표되었으며, 도서가 수집되는 동안 도서의 분류 작업을 시작하되, 접수된 도서의 목록 작성과 도서 보관을 위하여 이한출판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도서 수집과정은 6월 22일까지 1차 접수된 도서가 30개 단체에서 보내온 1,550권이었으나 도서를 검토, 분류한 결과 약 50%의 책이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2차 접수를 시작하였고 안양과학대학의 정상근 교수가 수도권대학을 집적 방문하는 등 각 대학의 대표교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어 7월 18일까지 접수된 도서는 47개 단체에서 9,861권이었고 생능출판사와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출판사 등이 대량의 도서기증 의사를 보내왔다.

8월 9일 2차 남북IT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까지 정리된 책은 65개 단체에서 30,588권이 수집 분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4. 최종 전달도서와 기증단계

그 후 일부 추가되어 최종 북측에 전달된 도서는 30,621권으로 도서의 종류는 3,507종으로 이중 국내도서 29,911권 영어원서 779권이다.

최종 전달된 30,621권의 도서의 기증은 68개 단체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으로는 안양과학대학 1,113권, 신홍대학 421권을 기증하였으며, 150

권 이상을 기증한 대학은 가천길대학, 남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성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서울산업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이고, 도서 기증에 참여한 대학은 총 69개 대학이었다.

출판사는 생능출판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흥능과학출판사가 대량의 도서를 기증 해주었고 그 외 연학사, 한티미디어, 헤지원, 가메출판사, 창조사 등 8개 출판사가 참여하였다.

### 5. 도서전달

수집된 도서는 포장된 채로 9개월간을 기다린 끝에 컨테이너 4개에 나누어져 2006년 4월 10일 경 선편으로 남포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5월 4일 평양 김책공대에서 도서전달식이 이루어졌다.

도서전달식을 위한 북한방문단은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회장을 단장으로 학회에서는 2005년 학회장이었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진형 교수와 단국대학교의 이상범 교수, 실무자로서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양룡 교수가 참석하였고, 벤처기업협회에서 IT포럼준비 등을 위해 조현정 회장 외 4명과 도서전달을 추진해준 유완영 회장 및 이규진 실장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도서 전달식을 위한 방북 일정은 2006년 5월 3일 인천공항을 떠나 심양을 거쳐 평양공항에 도착하여 당일 저녁 북한의 민화협 최성익 부회장이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5월 4일 오전 민화협 오참사, 김참사 등과 간단한 회의 후 오후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에서 도서 전달식을 하였다. 북한의 참석자는 교육성 정보기술국 정보지도사 정영희 국장, 교육성 교육정보센터 이수락 소장, 조선교육후원기금 리영 서기장, 김책공대 도서관 김성일 관장 외 관계자 몇 명이 더 참석하였다.

그리고 저녁 정영희 국장, 이수락 소장, 리영 서기장과 우리측 학회 3명이 이번 전달과정에 대한 설명 및 향후 협력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5월 5일 묘향산을 방문하고, 저녁 남측의 환송회를 민화협 관계자들과 갖고, 앞으로 남북한의 IT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방안을 폭넓게 교환하고, 다음날 북경을 거쳐 귀국하였다.



## 6. 향후 계획

2007년 2차 IT도서 보내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북한 측과 원칙적인 합의는 보았으며 정보과학회와 정보처리학회에 각각 보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7, 8월경에 북측과 협의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분간 협의가 연기되었으나 금년 내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1차 도서 나눔은 두 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성격 상 도서나눔은 두 학회가 담당하고, IT포럼은 벤처기업협회가 담당하고 서로 돕기로 하였다.

## 7. 전달 후 느낌과 감사의 인사

평양에서 도서를 전달하며 느낀 것은 현재 북한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북측의 교육관계자들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원 모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도서전달식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남북한 IT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당분간 지속적인 도서 나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통일을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두 학회에 보고하여 지속 사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라면 한국정보처리학회와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도서를 기증해 주신 교수님들께는 북측의 관계자 분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서를 기증해주신 생능출판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흥능과학출판사 및 연학사, 한티미디어, 헤지원, 가메출판사, 상조사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가 전달되도록 개인 경비를 들여가며 도움을 주신 유완영 회장님과 이규진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를 보내기 위하여 조선교육후원기금의 리영 서기장과 수차례 팩스송신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변정용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 수집과 분류를 위해 제일 수고 하신 엄영익 교수님과 정상근 교수님, 도서나눔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기간이 지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신 이한출판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 전달이 늦어지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도와주신 김병기 수석부회장님과 김동운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일정이 지연되는 어려운 과정에서 모든 행정을 맡아준 임영근 국장과 송영민 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